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집 뿐이리." 가정은 인격체 형성의 최초 단계이며 행복의 원천이다. 가정이 안락하면 세상이 안락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가족간에 무관심과 불화로 가정은 있으나 '가족'이 없다고들 말한다. 전도된 가치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천륜의 도리를 저버리기까지 하는 불행을 우려한다. 가정이 진정 안식처가 되는 길을 묻는다. 〈편집자 주〉

가정은 행복의 원천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좋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 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며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친척이야말로 으뜸가는 벗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다 친척을 알고는 있지만, 지극한 애정으로 근본을 삼으며, 정성을 앞세우고 의(義)는 뒤로 미루는 태도를 취해야 비로소 같이 살 수가 있다. 〈출요경〉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육방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육방에 대한 예배이니라. 〈육방예경〉

부자(父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말과 안색이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삶은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첫째는 물질을 급여함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법구경〉

관련기사 3·11면

선학원 이사 9명 제적원 제출

정일·범행스님등 조계승적 포기불사 밝혀

조계종, 초심호계위 소집…대화 여지 남겨

조계종·선학원 결국 결별하는가.

조계종이 4월 26일 선학원이사에 대한 초심호계원 회의를 개최하자 이에앞서 24일 선학원 이사 9명이 총무원에 제적원을 제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법진(정법사) 성월(강남포교원) 지민(연대선원)스님 등 선학원 이사 3명은 이사장 정일(보광사), 전 이사장 범행(광덕사)스님을 비롯 성문(묘관음사) 상원(복전암) 오원(칠보사) 정수(북악사)스님등 이사 9명의 제적원을 총무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조계종 개혁회의 이후 재단법인 선학원의 조계종단 귀속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여오면서 우려되던 종단분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학원이사들은 이날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들이 제적원을 내면서'라는 성명을 통해 "일제시대에 민족불교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선학원은 현 조계종의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등 조계종단과 선학원은 한뿌리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 종단이 행정적,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정관변경을 요구하며 문제해결보다는 일부 임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전개해 제적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재단임원 한사람이라도 징계할 경우 전 임원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했다"며 "진정한 개혁종단이 구성되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초파일 남북공동축원문 발표될듯

법타스님 방북 신계사 복원불사 등 논의

올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는 남북한 불교도의 통일염원을 담은 초파일 공동축원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4면〉

4월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 조선불교도연맹 심상련 서기장을 만난 법타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평불협 회장)에 따르면 우리측에서 준비한 공동축원문 초안을 조불련에 전달했으며, 조불련은 충분한 문안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법타스님은 또 "신계사 복원과 관련해 북한의 유물보존총국 관계자를 만나 기초적인 협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6월께 남측의 설계 실무자를 신계사지에 파견키로 했다.

◇경주 감은사지 東탑에서 국보급 금동사리함이 발견됐다.

국보급 신라금동사리함 발견

감은사지 東塔 무늬세련·정교 '공예걸작품'

경주 감은사지 東탑(국보 제112호)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금동사리함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재관리국과 관계전문가들은 4월 25일 감은사지 東 3층석탑 해체보수공사를 실시하던중 3층 탑신부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금동제 사리함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사리함은 금색이 완연하고 무늬가 뚜렷할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조각으로 통일신라 최고의 공예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체보수공사에 참여한 동국대 문명대교수는 "동탑의 사리장치는 정교한 모습을 띤 영원불멸의 불교사상과 호국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체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해체보수공사에 앞서 문화재발굴조사 사상 최초로 발원문과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등 불교의식이 봉행됐다.

〈경주=이윤호 기자〉

◇김영수 장관

◇서석재씨

◇박세일 수석

◇이각범 수석

김영수 문체부장관 적극 동참

반가상 보급 서석재·박세일·이각범씨도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은 4월 24일 현대불교신문사가 전개하고 있는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운동에 동참했다. 김장관은 "데생용 미륵반가상의 보급은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심어주는 문화교육"이라며 자녀의 모교인 "예일초등 은광중 대일고에 지원해달라"고 3구좌를 신청했다.

서석재 국회의원당선자도 "종교를 초월한 민족적 국민운동"이라며 10구좌를 동참했으며, 이와 함께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각각 2구좌씩 동참했다.

동참해주신 분

△남지심 우리는선우 공동대표: (1구좌) △현각 성불원주지: (5구좌) △자성 울진보광사 주지: 울진여고(1구좌) △수진 용화사 주지: 담양공고 담양실고 추성고 (3구좌) △무진 우암사 주지: (1구좌) △동진 충용사 주지: 거창대성고(1구좌) △도관스님: (1구좌) △김장자: (1구좌) △김수봉: (1구좌) △박종원: 청주여고(1구좌) △정구연: (1구좌) △이성룡: 춘천공고(1구좌) △김해광: (1구좌) △김덕구: 구례여중(1구좌) △송홍달: (1구좌) △현정: 경기고(1구좌) 〈4월25일 현재 총156구좌〉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를 높이 55㎝ 폭 35㎝로)

◇기술지원: 범종사 (대표 김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 지정 가능(지역학교·출신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 후에는 반드시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5월 5일 남한산성 걷기대회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은 청소년상담기관 마음의전화(대표 도각스님)와 공동으로 5월5일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청소년 남한산성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불교청년회가 주관하고 목아박물관 협찬으로 추진되는 이 행사는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 만해기념관관장)가 인솔, 현장 강의로 벽안 각성스님과 승군의 얼이 깃든 호국불교의 성지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을 순례하며 역사도 배웁니다. 또한 자연환경도 가꾸며 가족사랑도 느끼는 산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에서 제공하는 호신불목걸이를 증정하며, 퀴즈대회 상품도 푸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호국불교 성지에서"

△일 시: 5월 5일(日) 하루
△참가대상: 초·중·고교 학생과 부모 선착순 200명
△출발 및 집결지: 조계사 앞 집결(오전8시)→양재구민회관 앞 경유(오전8시30분)→남한산성 남문 도착(오전9시)
△참 가 비: 1인 1만원
△준 비 물: 도시락 모자 기록장
△특기사항
●온가족 참여자는 퀴즈대회시 추첨하여 특별상 시상 ●비디오촬영을 실비로 제공 (신청가족에 한함) ●가족끼리 개별 도착 가능
△문의 및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마음의전화 (02)747-5787

초파일 앞두고 사찰방화 '비상' 15면
불교 재난구조대 발대 15면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의의 2면
장애아동 특수교육센터 개설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證明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月下 大宗師
靈鷲山中 九龍吐水
玉龍子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민족평화통일·2002년 월드컵한국유치·불교중흥 기원 불교문화제전
會主 이목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영축산 통도사 비구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포교·복지·장학불사의 원력으로 한점한점 밤새워 기도하며 그려낸 길상도 작품전이 1996년 3월 21일 부산일보사 대강당과 전시관에서 개막되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月下 大宗師 예하께서 친히 입석하사 證明 하신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수많은 관람인파와 불자님의 동참으로 대성황리에 회향되었던바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거룩하옵신 부처님 나투심을 봉축하는 大吉祥圖展을 지극정성 마련하며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 대법회 : 1996. 5. 7(화) 오전 11시
- 장 소 : 잠실 호텔롯데월드 3층 특설대법회장·전시관

불교문화대강좌: 5.7~5.11 매일 오전11시~오후1시(3층특설법회장)
작 품 전: 5.7~5.11 매일 오전10시~오후6시(3층 전시관)

- 초청법사 : 무진장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성암도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송석구 박사(동국대학교 총장), 서윤길 박사(동국대 불교대학장),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고은 선생(시인), 남지심 선생(문인), 정병조 교수(동국대)
- 불자연예인 : 김병조(방송인), 김홍국(불자가수 회장), 김혜련, 두레 外

※ 기념품 증정 : 참석하신 불자님께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그린 길상도가 새겨진 호신불 목걸이와 아름다운 엽서세트, 손염주 등을 정성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 주 관 : 서울소림불교아카데미 / 소림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511-6210~5 FAX:511-6216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BBS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32 서울소림불교 장학회 소림불교복지회 금강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창원 구룡사신도회 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현대불교 주간불교 대한불교신문사 종교신문